

아시아 접착제 컨퍼런스 개막

아시아 지역 접착제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아시아접착제협회 국제컨퍼런스(ARAC)가 10월 28일 개최됐다.

4회째를 맞는 ARAC는 한국접착산업협회 주관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, 중국, 일본, 타이완 등 아시아 4개국의 접착산업 및 연구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해 친환경 기술 및 신기술, 신제품 등 기술 동향이 소개됐다.

또 <접착제의 녹색기술 혁신>을 주제로 총 34개의 주제발표가 28-29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.



접착제 컨퍼런스에는 Lanxess Korea를 비롯해 오공, 삼원, 인산디지켄, SK에너지, 애경화학, Henkel, Wacker 등 접착제 및 원료 생산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.

특히, Lanxess는 ARAC에서 아시아 최초로 자회사 Rhein Chemie가 개발한 접착제용 가수분해 안정제 <Hycasyl>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.

한국접착산업연합회 조한형 회장은 “ARAC는 아시아 지역 접착산업 종사자들에게 환경규제, 기술개발, 신제품 소개 및 시장정보를 교환하는 창구 역할을

하고 있다”며 “접착제 원료부터 완제품, 장비까지 접착산업에 관련된 기업과 연구자를 망라한 컨퍼런스를 통해 접착제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”이라고 소개했다. <박찬영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0/28>